

테마칼럼

이정제

김지현리

경제의 눈

문화 양자

5·18의 의미와 과제



김영웅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5·18을 그 외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80년 5월의 영령들을 모독하는 일이다.

광주 5·18 민주항쟁이 발생한 지 26년이 지났다. 그 동안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명명되고 망월동 묘지는 국립묘지로 그 격을 달리하였지만, 광주 시민들의 주장대로 5·18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이 말하고자 했던 바는 무엇인가? 인간은 해석하는 동물이다. 그리고 그 해석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가능하다. 즉, 이론 없는 존재하는 현상을 보고 해석할 수 없다. 5·18도 이를 일관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이론으로 뒷받침되어야 그 의미와 위상을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5·18의 역사적 배경

26년이 지난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이에 더하여 그 동안 축적된 사료(史料)와 진실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5·18의 의미와 위상을 새롭게 정리하여 승화시키는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이다. 광주 민주항쟁은 전두환 정권의 폭정과 정치인 김대중에 의해(擬制)했던 호남인의 정서가 김대중의 구축으로 폭발하였다. 특히 정치적으로 조작된 영남 지역과의 갈등으로 호남인의 피해의식이 누적되어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그러나 사건의 도화선 뒤에는 그 배경이 있는 바, 5·18의 역사적 배경에는 장기간의 '호남

푸대접'이라는 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은 1960년대 초부터 경제 개발을 시작하여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했다. 정부를 축으로 한 경제 성장이 분명 효율적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지만, 어쨌든 호남은 그 과정에서 소외되었다. 도입된 외자는 물론, 세금과 국내에서 동원된 자원이 광주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부 주도 계획은 필히 사회 각 구성원의 다양한 선호를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고, 일부 구성원은 자신의 의사대로 재산을 획득·처분·관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재산권을 침해 받게 된다. 한편 개인의 자유는 재산권 없이는 보장될 수 없다는 점에서 5·18은 호남인들이 그 동안 잃었던 재산권을 되찾고 스스로의 자유 수호에 나선 민주항쟁이다. 매년 5·18이면 많은 정치인들이 앞 다퉈서 망월동 국립묘지를 방문하고, 각 언론 매체는 그 날의 합성과 진행 과정을 소개하고 국가에 의한 공(公)폭력을 규탄하며 분노를 표현하고 있다. 광주 시민들의 정서에 공감하면서도, 매년 되풀이되는 행사와 프로그램에서 5·18이 한 차원 높은 수준에서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는 점은 느끼기 어렵다. 즉,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5·18이 국가 권력에 대항하여 싸운 자유 쟁취를 위한 행진이었다는 진전된 메시지가 별로 없다. 정치인들에게는 호남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지렛대로 이용되어 왔고, 일부 호남인들에게는 정치권으로부터 핑계를 안아내려는 도구로 사용된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살아남은 자들이 해야 할 일

이제 5·18 정신을 깊이 내딛기 위해서는, 그 본질적 의미를 자유로 인식하고 위상을 드높이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그리하여 5·18을 세계사적 민주 혁명의 반열에 올려놓고,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부수적인 각종 행사와 연구 작업도 당연히 각 개인의 자유 신장을 위한 방안 모색에 모아져야 한다. 이것이 살아남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5·18을 그 외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80년 5월의 영령들을 모독하는 일이다. 더구나 호남인들이 반독재 투쟁과 당시 독재 집단의 이념적 지평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정서적 차원에서 의도하지 않게 진보로 포장된 좌경화의 길을 간다면, 이는 5월 영령들을 더욱 욕되게 하는 일이다. 좌경화는 곧 집단주의를 의미하고, 이는 필히 개인의 재산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씩씩이 위기’ 여당, 이제라도 민심 읽어라

열린우리당이 어제 비상총회를 갖고 “지방선거에서 야당의 썩씩이를 막아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한 것은 5·31 지방선거 판세가 절망적이라는 위기감에서 나온 조치일 것이다. 선거를 불과 몇 새 앞두고 득표 운동에 한시가 급할 터인데 의원·당직자들을 죄다 불러모아 이같은 행사를 벌인걸 보면 열린우리당의 사정이 얼마나 다급한지를 짐작케 한다. 그러나 우리는 참패를 면하게 해달라는 정동영 의장의 발언에서 아직도 민심을 제대로 못읽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정의장은 “이대로 가면 서울에서 제주까지 한나라당이 썩씩이를 할 전망이다 거대 야당이 전국을 장악하는 국면이 도래하고있다”면서 “이제는 단지 민주·평화세력의 위기일 뿐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 심대한 위기라고 말했다. 여당의 패배가 국민에게 위기가 아니라, 위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여당 후보를 찍으라는 말인가. 표를 달라고

음소하러면 좀더 솔직해야 한다. 우리는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지난 3년 반 동안 ‘개혁’이라는 구호 아래 벌여온 수많은 독단과 오만, 위선과 자기모순을 잘 알고있다. 특히 탄핵 역풍으로 17대 총선에서 승리한 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오만은 극에 달했다. 대다수가 반대하는 사람을 기어이 장관에 앉히는 코드인사로부터 시도 때도 없는 이념전쟁과 국민 편가르기, 양극화 선동과 부동산 정책 실패등은 국민을 지치게 만들었다. 야당이 특별히 잘한게 없는데도 국민들이 야당지지로 돌아선 데는 이 정부와 여당에 대한 역겨움이 깔려있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호소가 등 돌린 민심을 얼마나 돌려 앉힐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막상 선거때에 다쳐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통사정하는 건 엄치없는 짓이다. 지방선거의 승패와 상관없이 그동안의 과오를 시정하고 민심을 추스릴 시책을들을 펴나가야 한다.

보름새 시가총액 90조 사라진 한국증시

국내 주식시장의 폭락세가 심각한 수준이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37.62포인트 급락한 1,295.76에 마감됐고 코스닥 지수도 16.78포인트 내린 620.20으로 주저앉았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코스피 1,300선마저 무너지면 보름새 무려 90조원에 달하는 시가총액이 사라진 것이다.

과 미국 금리인상 추세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최근 논란이 거일되고 있는 부동산 버블 붕괴론이 위기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이윤성 전망치를 당초 4.9%에서 4.6%로 0.3%포인트 낮춰 잡은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치적 환경이 외국 투자자에게 적대적이어서 한국 투자를 매우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다”는 존 그레이켄 미국 론스타 회장의 최근 기자회견 여파로 경기 회복에 필수적인 외국인 투자유치가 위축되지 않을 까 우려된다. 주가 폭락이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경우 소비심리를 급격히 냉각시켜 기업수익 하락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이제라도 선부름 낙관론을 접고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데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반 기업 정서를 완화시키는 데도 앞장서야 할 것이다.

한국증시가 이처럼 급락한 것은 미국 금리인상을 우려한 외국인 12일째 주식을 팔아치운 탓이다. 미국과 유럽 증시의 폭락이 국내 증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경제시대 외환부수에 주 자유롭기는 쉽지 않다. 그렇더라도 이번 주가 폭락은 예상치 못한 것이다. 외국인 매도 공세로 힘입어 연중 최저치로 추락한 것은 아직도 우리 증시가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 주변의 경제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 경제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차명석



분수대 쪽에서 바라본 도청은 항상 거대한 성취를 느껴졌다. 도청은 비바람을 막아주고 파사로운 햇빛으로 우리의 감싸주는 든든한 언덕이었다. 하지만 안에서 본 도청은 비바람을 막아내기에 너무나 허술했다. 얇은 시멘트벽과 기둥에 의지하여 시시각각 조여 오는 계엄군과 죽음의 공포에 맞선다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이었는지 다시 한 번 절감했다. 근대 이후의 세계사가 프랑스 대혁명의 자장권 안에 있다고 표현하듯 우리나라의 현대사는 5·18의 자장권 안에 있다.

다. 올해 광주가 발견한 두 명의 여성은 5·18이 광주를 넘어 아시아인들의 민주화에 커다란 모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고민하는 것은 5·18의 전국화다.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에서의 5·18은 여전히 지역이란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거기에 덧붙여 특정 세력의 전유물로 치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것을 광주 이외의 지역과 5·18의 의미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세력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더 이상 새로

광주의 발견, 5월의 탄생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 의미를 더 넓고 깊게 펼쳐나가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는 중이다. 민주·인권·평화는 우리가 현재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는 5·18의 정신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아시아까지 5·18의 자장권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올해 광주 인권상은 실종된 남편을 찾아 국가권력의 폭력에 맞선 태국의 양카나 날라파이정과 여성·아동의 인권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말라라이 조야가 공동 수상했다. 5·18은 이제 광주를 벗어나 세계로, 더 정확히 말하면 아시아로 향하고 있

는 문 사건의 출현을 감당할 수 없어서 ‘몇 주년 기념’과 같이 과거를 박제화해서 추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봐야 한다. 5·18 정신은 기념식에 참석하는 사람들과는 지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기념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생생하게 살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모든 권위주의와 기성 질서를 거부하고, 문화적 저항과 정치적 저항이 융화되어 표출되었던 프랑스의 68혁명을 떠올려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광주는 아시아를 발견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5월의 탄생에 목말라있다. <[재]5·18기념재단 상임이사>

따라하기식 번역·출판 풍토, 출판문화에 악영향

며칠전 아이들 책을 사기 위해 서점에 들렀는데, 같은 외국 원서를 각기 다른 출판사에서 번역, 함께 진열해놓은 탓에 어떤 책이 아이에게 좋은 것인지 선택하기가 어려웠다. 인기 있는 책은 출판사들이 곧 표지와 크기를 달리 한 뒤 서로 앞다퉈 출간한다는 얘기를 듣고 당황하기도 했다. 아이들이 읽기 좋게 번역하기보다는 광고나 유행어·디자인이 좋으면 오히려 팔린다니 어이가 없다. 저작권 시효가 없거나 이미 끝난 동서양

고전의 경우는 무려 수십가지 넘는데 이런 현실에서 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구해 주기란 무척 힘들었다. 양심 있는 출판사는 수정본을 내놓거나 오역을 바로잡아 출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영세업자들은 기준에 나온 책을 बे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무조건 따라하기식 번역, 출판은 없어져야 한다. 아이들의 지적 능력 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또한 양심 있는 출판문화 발전에도 나쁜영향을 줄 것이다. ▲이영희·광주시 서구 안동

◆ 독자시

구름이란

하늘에 뚱뚱하게 떠있는 솜털처럼 뽀송한 저 구름 구름 한 점이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네요. 저 구름 보고 느끼 이 마음 아~ 저 구름도 생명 있구나. 이제야 그렇게 알았습니다.

진정 생명이 숨 쉬고 있는 것이 구름인 것을 인간과 동물 모든 생명체처럼 나타냈다 사라지는 삶과 죽음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이 마음 답답한 존재 이었네.

우주공간에 뚱뚱하게 떠 있는 저 구름 우리생명들이 살아가는 목숨과 다를 바 없이 같은 삶인 것을 저 구름이 나와 같고 내가 저 구름 같네. 빈손으로 왔다가 보시하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저 모습 인간, 동물, 식물이 되었다가 그리하여 한 세상 살다 소리없이 가네요.

▲신영수·광주시 남구 서동

독자마당

책 표지만 바뀌 가격 올리는 암채상훈 사라져야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 참고서와 문제집을 사려고 헌책방에 들렀다가 “출판사에서 문제 몇 개 더 추가한 뒤 겹표지를 바꿔 헌책방에서 책을 못 사도록 한다”는 말을 들었다. ‘살파’하면서 메도해놓은 출판사와 문제집을 찾았는데 맞는 말이었다. 어렵게 찾은 문제집 하나가 겹표지만 다르고 내용이 똑같은 것이 아닌가. 교과서에서 배운 것을 문제로 풀여볼 수 있게 여러 문제를 모아 둔 문제집을 표지만

바꿔 500원~1천원씩 가격을 올리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중·고등학교 문제집은 기본이 만원 단위다. 대어섯 권만 구입해도 부담스럽다. 책의 내용이 달라져야 정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투자를 많이 했다면 할 말이 없다. 하지만 표지만 바꾼 뒤 책을 올리고, 그나마 헌책은 구입도 못하게 표지를 바꾸는 암채 상훈은 그만둬야 한다. ▲홍예서·광주시 광산구 두정동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無等鼓

‘동준이와 동수 아버지는 돈을 벌어 오겠다고 집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고, 영호 어머니는 암으로 죽는다. 주정꾼 남편 때문에 엄마가 친정으로 가버린 후, 숙자·숙희 쌍둥이는 힘겨운 삶에 짓눌려 있다.’ <앵이부리말 아이들>은 인천 만석동의 가난한 탈동네가 무대다. ‘고양이 섬’이 있던 바닷가의 피난민촌 아이들은

은 만석동의 숙자·동준이처럼 미래 지향적 이고 순수한가? ‘한국출판연구소’의 조사 결과 우리나라 성인 독서량은 연간 11권에 불과하다. 이 수치를 고려하면, 책 한 권 볼륨인 선거 공보물을 다 읽는데 한 달 이상 걸린다는

‘앵이부리말 아이들’



산이다. 두툼한 공보물을 유권자들이 외면할 것이라는 추론은 여기에서 나온다. 언제, 왜, 이런 정치적 무관심이 생겼는지는 입후보자 스스로 자문(自問)할 일이다. 낙선 후 깨달은 게 있다면, 다음 선거 때 공보물엔 “진실”(眞實)만을 담아내시길-. /정기태 사회1부장 meonsa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 편집·발행·인쇄인 白仁鏞 편집국장 池炯源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가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외 FAX 222-4918) 편집부 2200-629 정기부 2200-616 경제부 2200-617 사회1부 2200-618 (F A X 222-4267)	사회 2부 2200-619 (F A X 227-0118) 문화생활부 2200-626 여론매체부 2200-628 체육팀 2200-663 신문부 2200-690 조사부 2200-570	총무부 2200-511 (F A X 222-8005) 광고국 2200-521 (F A X 227-9500) 디자인 2200-536 (F A X 02-773-9333)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판매부 2200-551 (F A 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3 (F A X 02-773-9335)
---	--	---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